

장수군, 24시간 방범 CCTV 설치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

장수군은 각 종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 작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예산 2억3000만 원을 투입해 4개소에 9대의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교체 30개소 47대, 농촌마을 방범 CCTV 16개 마을 17대를 설치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109개소 317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노후 카메라를 교체해 선명한 고화질 촬영으로 촘촘한 실시간 방범 체계를 구축해 주민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농촌마을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총 206개 마을 314대의 CCTV를 설치해 농촌지역 빈집털이와 농산물 도난 등 범죄예방 효과 및 사후 검거율을 높였다.



장수군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CCTV 설치 및 교체로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CCTV 설치에 따른 활용도를 분석하고 일선 치안 현

장에서의 문제점을 협의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 장수 구현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사과와 우정이 싹트는 날'

무주군 학교 폭력예방 발표회 개최

무주군이 주최하고 법무부 법사립위원회 전주지역 무주지구 협의회,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경찰서가 주관한 제8회 무주군 학교폭력예방 발표회가 지난 12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과와 우정이 싹트는 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해 건전하고 밝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무주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7팀이 참가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최민후 법무부 법사립위원 전주지역 무주지구 협의회 회장 등 내빈과 관내 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역할극과 댄스, 노래 공연 등을 관람했다.

발표회 참가 학생들은 "공연을 준비하기가 시간이나 여러 면에서

힘들긴 했지만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됐던 만큼 그 마음이 공연에도 묻어나 관련한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연을 함께 관람했던 학생들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다른 친구에게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친구의 입장과 마음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인홍 군수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전하고 밝은 면학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군에서도 가고 싶은 학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8회 무주군 학교폭력예방 발표회가 지난 12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장수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연령기준 폐지, 지원횟수 17회까지 늘려

장수군이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17회까지 확대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달부터는 7월부터는 연령에 대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체

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확대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봉욱 원장은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장수군이 되도록 의료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예약팀(350-2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최선

행정안전부·전북도·무주군 합동점검

무주군은 지난 12일 무주군 물놀이 위험지역 및 덕유산 국립공원에 대한 물놀이 안전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물놀이 여행객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과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이정렬 재난협력정책관을 비롯한 이정진 부군수와 전북도청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그리고 무진장소방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점검단은 구천동 지역의 야영장 숙박시설과 물놀이 위험지역을 돌아보았으며 부표, 구명함 등 각종 장비와 시설물을 점검했다.

무주군청 이경진 부군수는 "군 자체적으로도 주말마다 물놀이 위험지역을 방문해 안전감시 요원 배치상황이라든지 시설, 장비 상태 등을 꼼꼼히 보고 있지만 오늘은 여러 기관이 함께 하면서 보다 확실한 점검됐다"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치와 보

완을 병행해 여름 휴가철 무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쉬다 가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무주군은 물놀이 위험지역 11곳에 44명의 인력을 안전교육 후 배치했으며 행락객이 몰려드는 주말에는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도 물놀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명조끼를 대여하는 것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현장에 비치해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장제세동기(AED)도 11곳에 비치해 두는 등 인명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구봉산 구름다리 정밀 안전점검

진안군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구봉산 구름다리 정밀 안전점검에 나선다.

2015년에 설치한 구봉산(1002m) 구름다리는 무주탑 현수교로 주말이면 1000여 명의 등산객이 찾는다.

군은 구름다리의 안전을 위해서 2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8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구름다리 바닥판의 손상 및 도장 훼손여부, 용접연결부 케이블과 소켓연결부 손상 및 진행여부, 케이블의 처짐 측정 및 교량

기초의 전도 및 부식진행 여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구봉산 등산객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봄·가을 행락철에 정기적으로 구름다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와 산행인들의 안전 산행을 위해 구봉산 등산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재난에도 대비하고 있다.

황삼국 산림과장은 "앞으로도 등산객이 많이 찾는 구봉산 구름다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의회, 예결위 구성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는 지난 12일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향후 1년간 진안군 예산, 결산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광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관순 의원이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김광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공공성과 효율성은 있는 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3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김중문)는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11일 일지리경제실을 시작으로 7월 17일 재무과, 산림과까지 장수군정 전반에 대하여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다.

18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화식)를 구성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김중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국민의 입장에서 잘된 점은 격려하여 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계북면장 현장행정 펼쳐

장수군 계북면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관내 16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주민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민관련사업 등 각종 군정·면정을 홍보하고 애로사항 청취, 생활민원, 공사·사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면은 이날 수렴된 생활민원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공사·사업 건의사항 등은 해당부서에 건의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재 면장은 "이번 현장행정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면·군정에 반영하고 민원의 불연속 해소 및 합장 장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